

# 맞벌이가족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공간구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Spatial Composition by Double-income Households Considering their Life Style

이세나\*                      이현수\*\*  
Lee, Se-Na                  Lee, Hyun-Soo

### Abstract

With the change of family type and diversify of life style, residents need various unit plan in quality. A rate of economically productive women has increased, and generally double-income households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So a research is requested to consider the double-income households's satisfaction for a unit plan based on their life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ouble-income households's lifestyles, and to search and analyze users' needs for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their lifestyles, and then, embody spatial composition of Apartment Unit pla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Housing lifestyles of users living in apartment are categorized into 5 types: seeking the way to make housework easy and comfortable, making the best use spatial composition, pursuing the universalism, housework oriented, pursuing the leisure. (2) The type of seeking the way to make housework easy and comfortable requests facility with home appliances and a shower bath, the type of making the best use spatial composition requests storage space and trial about new plan, the type of pursuing the universalism is concerned about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a memorial service, the type of housework oriented wants a talk with their family and discuss some problem, and the type of pursuing the leisure requests division of household with their family and likes traveling and sports.

키워드 : 맞벌이가족; 라이프스타일; 단위평면; 공간구성 만족도

Keywords : Double-income Households ; life style; unit plan, Satisfaction of spatial composi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지향하여 건설사에서는 다양한 차별화 전략으로 품질의 고급화, 새로운 평면형의 개발, 새로운 공급 방식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공급은 점점 양보다 질적인 수요와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다양한 거주자의 요구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1%로 2004년 49.9%에서 0.2% 상승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74.6%로 전년대비 0.4% 하락하였다<sup>2)</sup>.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근미래에는 맞벌이

가족이 전업주부가 있는 가족보다 좀 더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의 주부는 취업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두 가지 생활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에게 주거 공간의 동선 최소화나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맞벌이 가족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거요구와 공간별 만족도를 파악하여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단위평면 계획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맞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단위평면 만족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맞벌이가족은 산업 사회적, 도시적 개념이다. 따라서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감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2) 통계청(2006년 7). 통계로 보는 여성. 보도자료. p.25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이런 개념이 잘 적용된 서울 및 수도권 지역<sup>3)</sup>으로 한정한다.

2) 대상 평형은 평형대별 사례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85m<sup>2</sup>를 중심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한정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단위평면 주요구를 충분히 파악하도록 한다.

## 2.2 연구방법

첫째 거주자 요구를 기본으로 아파트 단위평면 유형조합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개념을 확립한다.

둘째 맞벌이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단위평면 공간구성을 위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셋째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특성과 단위평면에 관한 만족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 2.3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설문결과를 이용해 요인분석, 군집분석, 신뢰도 분석,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한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과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공간별 우선순위를 빈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개인 신상은 연령, 성별, 직업, 일하는 시간, 수입, 종교 등을 가족구성원 모두 조사하였다. 최종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102명 이었으며, 성비는 남성 8명(7.8%), 여성 94명(92.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설문 응답의 질이 달라지거나, 주택에 대한 만족도나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 수는 2명에서 5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분포는 2인 15가족(14.7%), 3인 42가족(41.2%), 4인 41가족(40.2%), 5인 4가족(3.9%)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31-40대가 33명(32.4%), 51-60대가 36명(35.3%)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 교수/교수, 자영업,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직업 역시 일반사무직, 자영업, 전문직, 교수/교사 등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국민 주택규모를 중심으로 평형대를 한정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 보다는 중년

층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한 가구가 많이 나타났다.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에서도 2인보다는 3~4인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3.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생활과 관련된 16개의 설문항목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모델은 요인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의 VARIMX방법으로 하였다. 요인수는 아이겐 값(Eigenvalue) 1.0이상인 요인만 선정하여 7개의 요인 중 5개를 추출하였고, 고유값은 그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항목의 공통성(Communality)은 16개 모두 사회과학에서 인정되는 0.4의 기준을 넘었다. 요인분석의 수행결과 5개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으며 보편가치추구에서 식사를 주로 가족과 함께한다는 문항은 맞벌이 가족의 특성상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반영한 값으로서 부정의 값이 도출되었다.

표1.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요인 성향	포함항목	요인적 재량	고유값
<b>요인 1 : 편리추구</b>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곤 한다.		
	가사일을 보조하는 기구나 가전제품을 많이 구입한다.	0.794	2.507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편리한 생활을 하고 싶다.	0.743	
		0.738	
	육질의 육조대신 사워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0.543	
<b>요인 2 : 공간활용추구</b>			
	방의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0.822	1.947
	다른 방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서재나 취미실 등을 만들고 싶다.	0.758	
	주택내부에서 새로운 것이나 혁신적인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0.690	
<b>요인 3 : 보편가치추구</b>			
	식사는 주로 가족이 함께 한다.		
	환경보존에 관심도 많고, 실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0.696	1.821
	옛날부터 계승되는 제사와 같은 관습과 행사를 자주 치르시는 편이다.	0.679	
		0.558	
<b>요인 4 : 가족중심</b>			
	가족과 문제를 곧잘 상담한다.	0.792	1.545
	집에 있을 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한다.	0.767	
<b>요인 5 : 여가추구</b>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자주 한다.		
	가정의 가사노동은 남편이나 자녀와 함께 나누어 분담한다.	0.920	1.054
		0.842	
	내부공간의 편안함이나 기능보다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을 선호한다.	0.556	
	여행이나 스포츠 등 여가를 자주 즐기시는 편이다.	0.510	

3) 수도권이란 서울과 인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군을 포함한다.

### 3.3 맞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이들 요인분석된 변수들을 기준으로 아파트 주부의 주생활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절차는 가장 가까운 중심치를 기본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각각의 사례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 또는 중심치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변수는 앞의 전체표본에서 사용한 16개의 요인을 사용하였다. 군집을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2. 유형간 구성비

	F	%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형1	18	17.6	17.6	17.6
유형2	9	8.8	8.8	26.5
유형3	49	48.0	48.0	74.5
유형4	8	7.8	7.8	82.4
유형5	18	17.6	17.6	100.0
합계	102	100.0	100.0	100.0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는 유형들이 각 요인의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형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로 분석하였다. 세분유형의 성향 파악을 위한 유형별 평균치는 다음과 같다.

표3. 유형별 평균

	유형1 (18)	유형2 (9)	유형3 (49)	유형4 (8)	유형5 (18)
사례수(N=102)					
편리추구	0.943023	-0.87704	0.020167	0.682278	-0.86264
공간활용추구	-0.80874	-0.99828	0.362043	0.972151	-0.10975
보편가치추구	0.549208	-0.58879	0.26311	-2.1271	-0.02568
가족추구	-0.13162	-0.83238	-0.0448	0.043614	0.650389
여가추구	0.562102	0.177699	-0.26154	0.042628	0.042076

### 3.4 유형별 특성

유형1은 편리추구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집단으로 4인 11가족(61.1%), 3인 4가족(22.2%)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40-50대가 11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으로는 자영업과 일반 사무직이 각각 6명(33.3%), 5명(2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에 따른 소득은 55.6% 이상이 500만원 이상 이었다.

유형2는 여가추구요인이 긍정적인 값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부정의 요인이 강하게 나타난 집단이다. 응답자의 44%가 남성이어서 라이프스타일이나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난 집단으로 분석된다. 가족구성원은 2인, 3인, 4인 가족이 각각 33.3%였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31-40대, 41-50대, 61-70대가 각각 3명(33.3%)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일반 사무직과 전문직 각각 5명(5.65%), 3명(33.3%)이며, 그에 따른 소득은 300~500만원이 20%정도로 고루 나타났으며 44.4%가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

였다.

유형3은 공간활용추구와 보편가치추구 요인이 나타났으나, 다른 유형에 비하여 평균값이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유형4의 집단에 비하여 공간활용추구 요인값이 작으므로 이 유형을 보편가치추구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포함된 사례수가 가장 많은 보편적인 집단이며 가족 구성원이 3인이 21가족(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4인 17가족(34.7%)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51-60대가 23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대가 15명(30.6%)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일반 사무직이 19명(38.8%), 교수/교사가 14명(33.3%)이며, 그에 따른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다.

유형4는 사례수가 가장 작은 총 8사례가 속하는 집단으로 가족 구성원 4인이 6가족(75%)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1-40대가 4명(50.0%), 41-50대가 3명(37.5%)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가족 유형이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자영업, 일반 사무직, 전문직이 고루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62.5%로 가장 많아 고소득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공간활용추구 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나, 보편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값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족이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환경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분리수거나 생활에서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옛날부터 계승되는 제사나 집안 행사를 자주 치르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자녀가 성장하여 개인적인 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서 가족이 함께 만나기 힘든 구성원이며 유형3과의 차이점은 공간활용추구가 좀 더 강하며 보편가치에 대한 부정의 요인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유형5는 가족추구 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의 중 자녀들의 나이가 20~30대가 많았다. 이 유형에서는 편리추구에 대한 부정의 값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부부의 나이가 50-60대로 가전제품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과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족구성원은 3인이 13가족(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51-60대가 10명(55.6%)으로 가장 많고, 31-40대가 6명(33.3%)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일반사무직이 38.9%, 고객지원/서비스가 22.2%, 영업마케팅, 연구개발직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61.1%로 나타났다.

### 4. 단위평면 유형분석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거주하는 단위평면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 진입방식, 전면bay, 침실수, 화장실수, 거실부엌식당의 분리 등의 요소로 평면을 분석하였다. 평면대별 사례수가 가장 많은 61-85㎡사이의 대표적인 평면으로는 2bay, 3개의 침실과 2개의 화장실, L-DK가 가구나 벽에 의해서 반개방된 분리, 계단실형 유형이다

표 4. 단위평면 유형별 사례 분포

(n=102)

평형대별 (㎡)	bay		침실수			욕실수		L-DK분리		진입방식			합계
	2	3	2	3	4	1	2	개 방	분 리	반 개 방	복 도 실형	계단 실형	
60이하	10	12	11	11	0	15	7	7	5	10	6	16	22
61-85	39	25	2	62	0	22	42	7	1	56	15	49	64
86-102	8	5	0	10	3	5	8	0	2	11	3	10	13
103이상	0	3	0	1	2	0	3	1	0	2	0	3	3

4.1 편리추구형의 공간별 유형

현재 거주하는 단위평면으로는 현관,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부부욕실, 자녀실1, 자녀실2로 8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유형이 55.6%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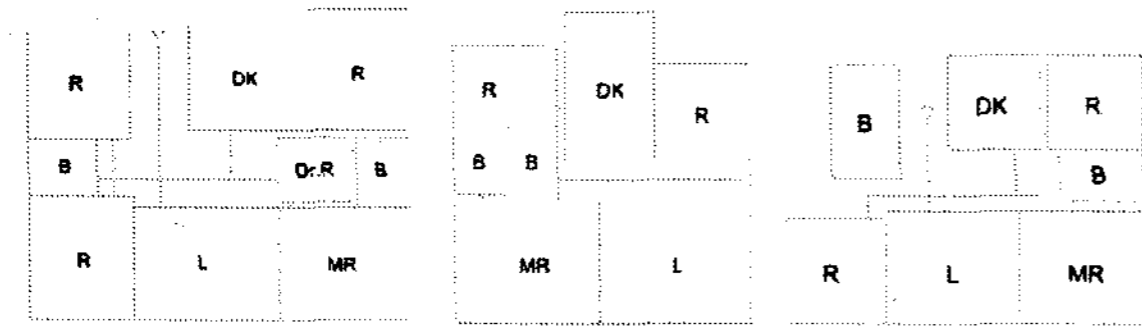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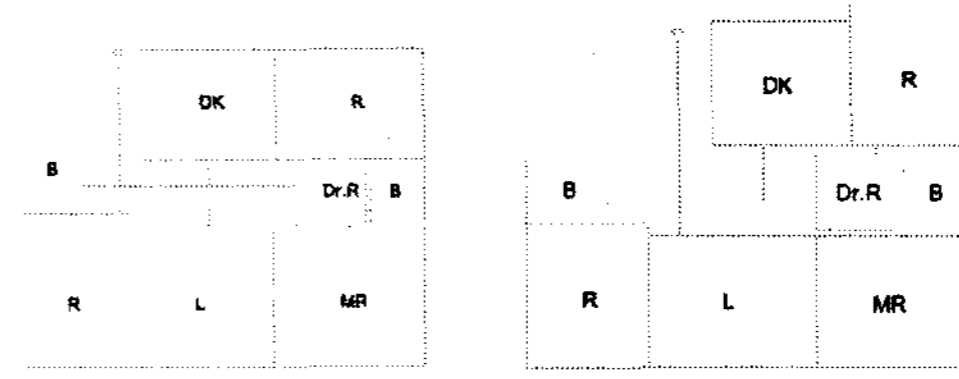
그림 1. 편리추구형의 단위평면 유형

전면이 2bay가 22.2%이며, 3bay는 77.8%로 나타났으며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2bay보다는 3bay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면에 있는 거실과 자녀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우선순위로는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별 만족도에 있어서 부엌/식당공간이 50%이상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규모가 너무 협소하거나, 다른 공간과의 배치면에서 불편한 것이었다.

4.2 여가추구형의 공간별 유형

단위평면 구성은 9개의 공간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드레스룸이나 창고의 공간이 추가된 유형이 나타났다. 침실의 개수는 3개로 자녀실1과 자녀실2만 있으며, 드레스룸이나 창고와 같은 기능적인 공간이 추가된 평면이다. 아래 그림의 두 유형은 공간 배치와 규모는 비슷하나 동선 연결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a유형은 전형적인 부부공간의 동선을 고려하여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이 안방과 연결되어 고립된 배치이며, b유형은 드레스룸을 통과하여 자녀실과 안방으로 분리되어 진입하는 배치를 하고 있다. 이 유형은 가족드레스룸을 추구하는 요구가 잘 반영된 배치라 할 수 있겠다.

전면이 2bay가 66.7%이며, 3bay는 33.3%로 나타났으며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모든 공간에서 2bay보다는 3bay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우선순위로는 거실, 안방, 부엌/식당, 자녀실1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 만족도에 있어서 공용욕실이 70% 이상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실1도 40% 이상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규모가 작아서였다.



(a) (b)  
그림 2. 여가추구형 단위평면 유형

4.3 보편가치추구형의 공간별 유형

공간구성은 전체 사례의 대표 유형인 8개 공간이 가장 많았으며, 욕실의 개수와 방의 개수에 차이에 의해서 7개와 6개의 공간 유형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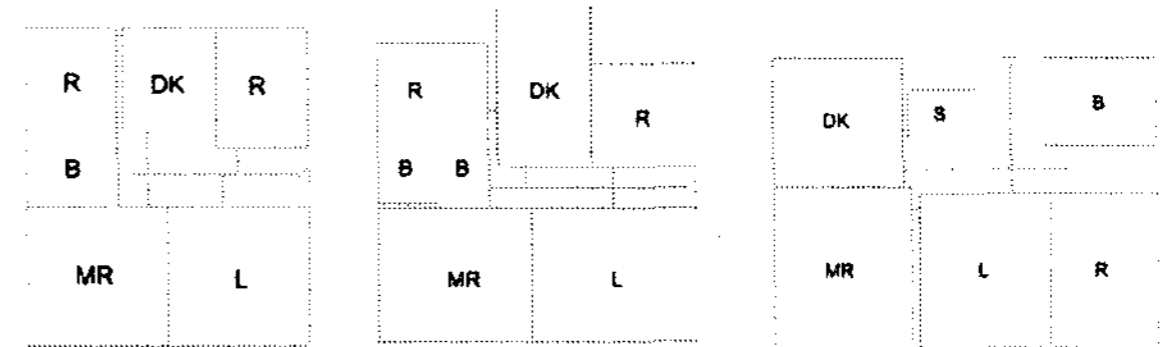


그림 3. 보편가치추구 단위평면 유형

단위평면의 전면은 2bay가 59.2%, 3bay가 40.8%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서는 만족도가 대부분 평균이나 그 이하의 값이 나왔으며, bay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정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3bay의 평면유형이 면적이 큰 평형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평형대에서 자녀실의 개수가 1개 정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간의 우선순위로는 거실, 부엌/식당, 안방, 자녀실1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 만족도에 있어서 현관이 34.7%가 다른 세대와의 프라이버시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용욕실도 22.4%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4.4 공간활용추구형의 공간별 유형

공간구성은 9개 공간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드레스룸과 욕실이 2개인 유형이 8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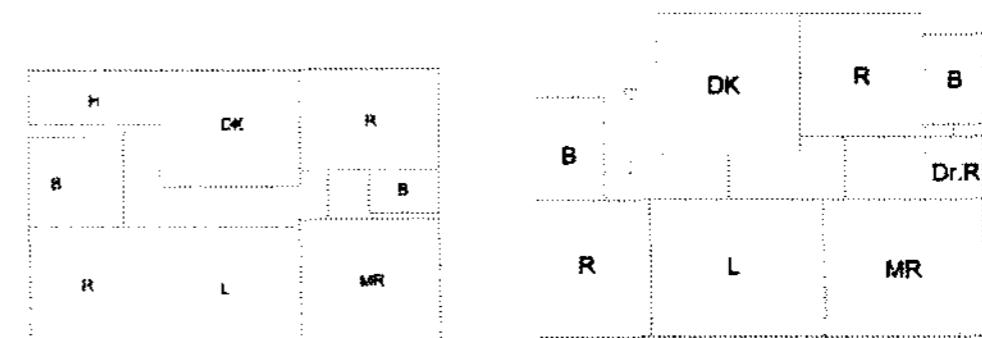


그림 4. 공간활용추구형 단위평면 유형

단위평면의 전면은 2bay가 37.5%, 3bay가 62.5%로 전면이 넓은 공간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이다. 전면에 배치된 거실과 자녀방의 만족도는 높아진 반면 부부욕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부욕실의 배치가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을 지나서 진입하게 되는 동선의 연결방식에서 거주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어



만족도가 달리진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우선순위로는 거실, 부엌/식당, 안방, 자녀실1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방과 자녀실1에 대한 우선순위가 62.5%로 같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님이 안방공간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배우자와 함께 자녀실1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녀실1에 대한 우선순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공간 만족도에 있어서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0%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내부 시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계획된 경우로 볼 수 있었다.

#### 4.5 가족추구형의 공간별 유형

공간구성은 8개 공간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욕실의 개수에 의해 공간의 개수가 7개와 8개로 양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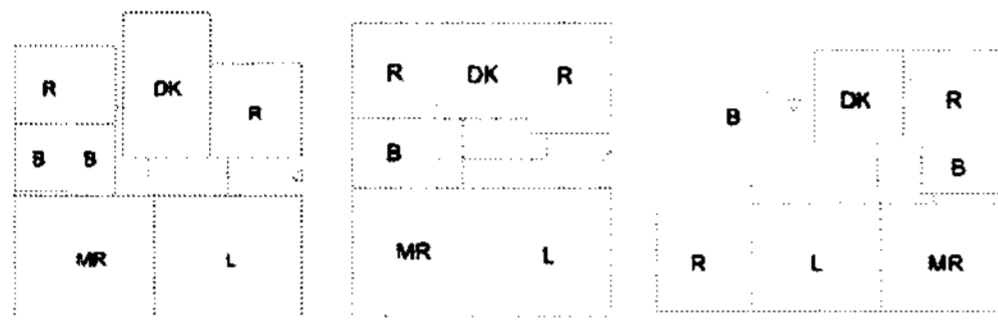


그림 5. 가족추구형의 단위평면 유형

단위평면의 전면은 2bay가 61.1%로 나타났다. 전면배치된 안방과 자녀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작은 규모로 인한 부부욕실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공간의 우선순위로는 거실, 안방, 부엌/식당, 자녀실1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 만족도에 있어서 안방이 불만족하다고 50%로 나타났으며, 부부욕실에 대한 불만족도 22.2% 나타났다. 이 유형은 안방에 대한 요구도가 강한 편이나 현재의 단위평면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유형이다.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가족과 함께 작은 평형대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어 만족도 부분에서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족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계획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분석대상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단위평면의 만족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인 김수경(2001)의 맞벌이 가족의 주거요구에 의하면 자녀실이 안방보다 커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실의 크기와 배치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가장 큰 공간으로 거실(81.2%)을 원했으며, 두 번째로 자녀실(38.4%), 부엌(22.2%), 안방(21.3%)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가족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증가하였고, 자녀보다는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실, 서재, 그레스룸, 운동실, 전실 등 편리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분석대상은 편리추구형, 여가추구형, 보편가치추

구형, 공간활용추구형, 가족추구형으로 주생활양식을 유형화 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편가치추구형이 4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 유형은 공간활용추구에 대한 요인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맞벌이 가족 일지라도 환경보존의 실천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나 집안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편이며, 비맞벌이 가족 유형과 비슷하게 주생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맞벌이 가족에게는 더 짧은 시간에 같은 주생활 행위가 일어남을 의미하며, 그만큼 가사노동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그에 따라 주거 만족도나 주요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필요한 공간으로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서재, 부부와 자녀를 위한 드레스룸,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 배우자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스포츠용품과 여가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과 전실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구성원 수가 줄어들어 따라서 3개의 방의 개수를 계속 고수하기 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평면 계획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으로 파악된다.

셋째 편리추구형을 위한 평면으로는 40대부부와 1자녀형으로 거실, 부엌/식당, 안방, 공용욕실을 중심으로 부부를 위한 공간을 계획하며, 여가추구형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없는 집단으로서 거실, 안방, 부엌/식당, 자녀실1을 중심으로 드레스룸, 부부욕실, 창고 등의 동선관계를 고려한 배치를 계획한다. 보편가치추구형은 30대와 50대 연령을 위한 거실, 부엌/식당, 안방, 자녀실1을 중심으로 공간을 계획하며 이 유형은 평면내의 구성뿐만 아니라 주변 세대와 연결되는 단위평면의 조합방법에도 관심이 많았으므로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현관의 배치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공간활용추구형은 거실, 부엌/식당, 안방, 자녀실1을 중심으로 젊은 부부와 부모님이 함께 사는 고소득 집단으로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동선을 계획하며, 가족추구형은 50대를 중심으로 20대의 자녀와 함께 사는 집단으로 거실, 안방, 부엌/식당, 자녀실1을 중심으로 계획하며 가족이 각자 개인생활을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참고문헌

1. 김수현,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1999
2. 백혜선, 아파트 평면유형에 대한 거주자 선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1990
3. 신중진, 수요자의 요구와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용인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 2004
4. 이영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선택형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6호, 1998
5. 이창범, 도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주거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주택연구소,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 개발방향 및 설계지침」,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원, 1999